

# “茶는 인류와 불교에 이로운 것”

(차)

박동준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소장



박동준은 ... 1953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청명 임창순 선생에게 한문을 배웠다. 1985년 초의선사의 차종을 이은 응송 박영희 스님에게 '다도전계(茶道傳儀)'를 받음으로서 '초의차'의 이론과 제다법을 이어 받았다. '초의차'는 조선 후기 초의선사에 의해 정립된 우리 전통 차의 적통이다. '초의차'를 잇는 한편 초의선사뿐 아니라 한국 차 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는 일을 병행하면서 동국대 대학원 석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성과를 모아 다수의 논문의 발표했다. 응송 박영희 스님으로부터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받았고,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에서 '초의차'를 계승하는 '동춘차'를 만들며 한국 다도의 맥을 보존, 전수하고 있다. 제2회 화봉학술문화상과 제22회 행원학술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성균관대학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 및 문화융성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의선사의 차 문화 연구>(일지사), <맑은차 저멸을 깨우네>(동아시아), <우리시대 동다송>(북성재) 등이 있다.

“차(茶)를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차를 생각하고, 차를 만들며 35년을 살았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시대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리라. 우리 차의 중흥자인 초의선사의 차맥을 잇고 우리 전통차 발전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박동준(61) 소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그렇게 말했다.

### 초의의 차맥을 이은 응송을 만나

성균관대학에서 유학을 전공한 박동준은 한문에 관심이 많았다. 한학자였던 할아버지의 영향이 그에게도 미쳤던 것 같다. 박씨는 스물 네 살 되던 해에 한문 공부를 하기 위해 청명 임창순 선생을 찾는다. 그는 그 때 처음 차를 마시며 '차'를 맛본다.

“난생 처음 '차'라고 하는 것을 마셔봤는데, 그 맛과 향이 새로운 '세계'였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차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박씨는 '차'라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지만 어렵게도 그 신세계를 오랫동안 누릴 수 없었다.

하지만 박씨의 차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박씨에게 '차'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처럼, 만나야 하는 '인연' 같은 것이었다. 오년 뒤인 1979년, 청명 선생으로부터의 공부를 마치고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연구부에서 한문 공부를 이어가고 있던 박씨는 초의선사의 차맥을 이은 당시 대흥사 주지 응송 스님(1983~1990)을 만난다.

응송 스님 역시 차를 아끼며 곁에 두고 살았던 이로, 우리차 계승에 많은 노고를 더한 선조이다. 응송 스님은 초의선사의 공부에 자신이 이룬 공부를 더해 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원고가 완성되고 출간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응송 스님의 원고는 한글체가 아닌 한문혼용체였다. 출간을 위해선 한글체로의 윤문이 필요했다. 한문을 잘 아는 이가 있어야 했다. 응송 스님은 윤문을 부탁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인연은 '박동준'이었다. “결국 한문공부가 차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했고, 불교의 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게 했다.”고 박씨는 말했다. 그 원고는 박동준의 윤문을 거쳐 1985년 <동다정통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4년 동안 스님을 모시면서 차의 세계와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 진정한 차의 세계로 들어서다

응송 스님을 모신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제다철이 되어 박씨는 대흥사 옆 백화사에서 스님과 함께 처음으로 차를 만들게 된다. 차를 따고, 뒤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당시는 차를 따러 강진까지 가야 했다. 대흥사 주변에 차밭이 없었다. 차를 구해서 돌아왔을 때 벌써 날이 저물었다. 차의 숨이 사라지기 전에 작업을 시작해야 했다. 다음날로 미룰 수가 없었다. 어둠을 겨우 견어낸 희미한 백열등 밑에서 박씨는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었다. 차가 완성되었고 박씨는 스님과 함께 손수 만든 차를 맛본다.

“새벽 3시쯤 스님과 함께 우리가 손수 만든 햇차를 마시는데, 물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덩어리 하나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조금 지나니

까 형언할 수 없는 향과 기운이 입과 코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데,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차와는 또 다른, 엄청난 신세계였어요.”

그렇게 박씨는 '차'라고 하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차를 맛보고 향을 느끼고 나니, 그 '과정'이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차를 따는 순간부터 뜨거운 무쇠솥에서 차를 뒤는 과정과 뜨거운 물로 우린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음미하는 순간까지, 눈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고 '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박씨는 차에 대한 생각이 단지 '마시는 것'에 머물지 않았다. 박씨는 차를 '생각'하게 됐고, 차의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 '초의차' 계승... 응송으로부터 부족

응송 스님으로 인해 차의 세계를 알게 된 박씨이지만 그는 응송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우리 차문화의 중흥자인 '초의'도, 지적에서

### 초의 다맥이 응송 스님 만나

#### 원고 윤문하며 초의차 처음 맛봐

#### 스승으로부터 '초의 계승' 부족

#### 법호 '무공'과 다도전수계 받아

#### 선종과 차는 불가분의 관계

#### 단순한 '제조' 아닌 '제다' 의미

#### 스승 열반 후 홀로 서며 깨달아

#### 매년 만든 '동춘차' '무상' 보시

#### 사유화 할 수 없어 판매 안 해

#### 11월 15일 미래 모색 위한 세미나

모시고 있는 응송 스님이 초의 스님의 차맥을 이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1985년 응송 스님은 박씨에게 '무공(無空)'이라는 법호를 내리며 초의 스님과 스님의 차에 대한 연구를 부족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다도전수계를 전한다.

“전함이 없이 전했고 받음이 없이 받았다. 전함이 없는 고로 참으로 전했고 받음이 없는 고로 참으로 받았다.(無傳而傳 無受而受 無傳故 眞傳 無受故眞受)” 승속간에 오간 전법계였다. 그때부터 그는 초의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박씨는 응송 스님이 부족한 초의 스님의 대한 '연구'는 '복원'이라고 생각했다.

박씨는 그 복원에 자신의 이름을 걸기로 한다. '응송'이라는 살아있는 역사를 거쳐 '초의 차'를 복원하기 위한 길을 시작했던 것이다. 박씨는 초의 스님이 지은 <동다송>을 비롯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초의 스님의 자료를 찾아 모았다. 해남, 순천 등지에서 우리

전통 야생차를 채취하고, 한반도 차의 기원과 주변국들과의 비교 연구 등에 매진했으며, 한 해 한 해 차를 만들어가며 초의 스님의 제다법을 복원해 간다.

### 시련과 깨달음

1990년, 스승 응송 스님이 열반에 들었다. 박씨에게 첫 시련이었다. 스승의 부재 자체가 시련이었다. “스님이 가시고 첫 해에 차를 만드는데, 고열에 달아오른 차가 변해무쌍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여러 해 해온 일인데 그렇게 아무 생각도 나질 않는다는 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스님과 함께 차를 만들었을 때 밤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던 차의 미세한 변화들을 처음으로 밝은 낮에 작업을 하면서 박씨는 처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감당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차일이 순간순간 여러 빛깔로 변화무쌍하게 변했어요. 그때부터 아무런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음 보는 경이로움에 모든 생각들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게 '공부'였어요. 눈을 감고 어두운 방에서 차를 만들던 기억으로 차일을 감각으로만 만지기 시작했더니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실상과 허상'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눈으로 보는 현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다니던 내 모습이 여지없는 '중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씨는 그 일을 계기로 '차'에 좀 더 다가가게 되었고, 부처님 공부의 진지한 맛을 경험한다. 차를 만드는데는 단순한 '제조'의 의미가 아니었다. 만드는 이의 '투명'이었다. 만드는 이의 마음이 '있는' 것이었다. '과정' 자체가 주는 공부가 '차'였던 것이다. 박씨는 스승을 떠나보내고 홀로 서면서 차를 만드는데는 어떤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 돈으로 살 수 없는 '동춘차'

“성취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스님을, 당시의 초의차를 추측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해 한 해 그 당시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복원의 성과를 묻자 박씨는 그렇게 대답했다. 박씨는 응송 스님이 열반에 든 뒤 해마다 전남 승주 송광사 산자락 야생차밭에서 손수 차를 따고 초의 스님의 차에 다가가기 위해 차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져 온 박씨의 차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차가 된 지 오래다. 이 대목이 박씨의 성과를 이야기해준다고 생각된다. 박씨는 매년 30g 짜리 차 500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차를 박씨는 주변의 지인들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량을 무상으로 보시하고 있다. 박씨의 차는 일명 '동춘차'로 불린다. 정식 이름은 아니다. 차를 받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우리의 전통차가 전승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력과 원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켜져 내려온 역사성과 선조의 노고를 사유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 생전예수재 장엄 안내문



귀의삼보하옵시고!  
가람수호에 정진하고 계시는 각 사암 대덕큰스님 법체 존안하옵시옵니까.

소승은 대구시내에서 불교의식 및 범음, 범패교육원을 개설하여 불교의식을 지도하고 있는 원장(동현)스님입니다. 올해 소승이 4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이 들어있는 갑오년을 맞아 예수재 장엄일체를 제작 하였습니다.

부족하나마 50년을 불교의식을 해온 것을 토대로 의식에 밝은 스님들의 고견을 얻어 장엄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예수재를 올리는 각 사암 스님들을 위하여 올바른 재단 설치와 번 설치 순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예수재장엄 구입방법은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고 받으실 주소와 사찰명,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은 선결제입니다.

통장 입금 확인후 3일 이내에 택배로 배송해 드립니다.

- 물품구입처 :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8-11-906861-6 (예금주 : 주동주)
- 예수재 의식을 집전하실 스님도 알선해 드립니다.

대구불교 의식 범음,범패 교육원장 석 동현 합장

## 동현스님 장엄 (생전예수재)

상표출원번호 제 40-2014-0040849호

- 1 대번
- 2 상단,중단,하단 위패
- 3 시왕단
- 4 26위관관 / 37위귀왕
- 5 사자단
- 6 고사단
- 7 영단
- 8 금란방, 정제소
- 9 예수시왕도량
- 10 일백사위 사화

● 주소 : 대구시 수성구 범물2동 871-1번지 ● 문의처 : 전화 053)781-4200 / H·P 010-2547-4200

# ... '초의차' 잇기 35년

박씨는 자신의 차를 무상 보시하는 이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사유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씨의 동춘차는 한국의 전통차 문화 저변의 기둥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춘차는 '판매' 되지 않는다. 아니 판매하지 '않는' 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걸쳐 기록해 놓은 것을 물려받은 것인 만큼 자신의 성과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유화의 일환인 상업화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차의 세계는 맑음에서 출발하고 맑음에 도달하는 세계입니다. 맑지 않은 마음으로는 맑은 차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맑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 흩어져버릴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극점에 도달해야 하고, 또 유지되지 않으면 순간 사라지는 세계인 것이죠. '상업화' 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자칫 마음을 잘못 운영하면 제가 추구해온 '맑음'의 세계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업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춘차가 우리 차문화 저변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되고 기준과 목표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동춘차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이죠."

그렇다. 사유화할 수 없어서 판매할 수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동춘차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다.

### 차는 음료 아닌 '정신인문학'

"차의 가치는 우리의 몸과 정신을 맑게 해준다는 것에 있어요. 인류에게 이로운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죠. 차의 바탕에 선종이 있고, 선종의 곁에 차가 있었죠."

박씨가 오랜 세월 이토록 차에 매진해온 이유는 차가 인류에게 이로운 것이고 불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힘들대로 힘든 현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로운 것이고, 좌선의 수행법을 가진 선종의 가풍에 역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종의 가풍을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유산인 것이다.

이렇듯 차의 세계는 정서적 순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차의 세계를 단순한 음료의 영역으로 보아선 안 된다고 박씨는 말한다. 인류에게 정신적인 풍요를 제공하는 '차'는 정신인문학의 한 분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책이 인류의 정신을 키운다면, 차는 인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결국 그는 인류를 위해 불교를 위해 차를 만들고 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동춘차의 진정한 이름을 기다리며

"동춘차의 진정한 이름은 동춘차가 완성되는 날 동춘차에 꼭 맞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박씨는 아직 정식 이름이 없는 동춘차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을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응송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의 차를 잇고 있다. 초의 스님의 '차'는 우리 전통차의 '중흥'이다. 우리 차의 원형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의의 차는 초의의 차요, 응송의 차는 응송의 차다. 그리고 박동춘의 차는 동춘차다. 맑음을 추구하는 차의 세계에서 '완성'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일 수 있다고 박씨는 말한다.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 '완성'이라는 말은



박동춘 소장이 손수 채취한 차잎을 무쇠 솥에 넣고 있다.



2014.9.29 전통문화전문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한 박동춘 소장

적당치 않다는 것이다. 그 노력이 박씨에게는 초의의 차 맥을 계승하는 일인 것이다.

현재 성균관대학 생활과학대학원 겸임교수인 박씨는 오는 11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차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학교와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70년대 우리나라 차문화운동 초기의 원로 3인을 초청해 당시의 차문화 현상과 수준을 들어보고 현재 전승된 우리 전통차의 의미와 현대화를 위한 과제, 차관련 교



박동춘 소장이 손수 만든 동춘차를 내리고 있다.

육제도의 현황, 여성화된 우리 차문화의 명암 등을 짚어 볼 계획이며, 청년들과 함께 현장 시음을 통한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는 이제 초의 스님의 차를 잇기 위해, 우리 전통차의 맥을 잇기 위해 차밭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또 책상에만 앉아 있지도 않는다. 차밭에서 차잎만을 따지 않는다. 초의의 뜻을 응송이 있고 응송의 뜻을 박동춘이 이었듯, 누군가 박동춘을 이어주기를 기다리며 또 다른 방법으로 미래를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 전법일기

## 구슬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일상의 지혜는 속담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같다.

인생을 고상하게 꾸며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식구처럼 인생은 낯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한 모습이기 십상이다. 어느 스님이 유행가 법문이라고 이름 지어 놓고, 법문 때마다 유행가를 부르기도 하고 가사를 인용해서 법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듣다보니 정말 삶의 애환과 애정을 너무나 적절히 인용하는 법문이라서 점점 빠져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8년 10월 10일로 기억한다. 약천사에서 전국불교합창제를 개최하였다. 참가한 합창단원만 1,600명이 넘는 대합창제였다. 설망대할명으로 시작하는 제

으로 꾸며지는 것 같다. 합창단들은 무엇보다 노래를 잘하고자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합창단이 개별 사찰에서의 역할을 보면 단순히 노래만 하는데 머물지 않는다. 몇몇 사찰은 합창단이 사찰운영의 주도적인 단체로 역할하는 곳도 있다. 이렇듯 이제 전국 불교합창단연합회는 고유의 목적인 노래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전국규모의 잘 갖추어진 전법단이라는 의식을 겸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 같다.

제주에는 서귀포와 제주시에 불교합창단이 25개 정도가 있다. 놀라운 것은 이들 합창단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정기공연과 다양한 지역의 행사에 동참하여 하는 공연들을 다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다.



그림 · 박구원

주의 탄생설화부터 불교의 전래, 그리고 불교의 중흥을 주제로 엮은 합창제였다. 모든 합창단이 함께 부른 마지막 곡인 '제주의 아침'은 두고두고 들어도 장엄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하지만 합창제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 전국에 300여개의 불교합창단이 있는데 전국적 조직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당시 삼보불교의 김귀련회장과 제주불교여성합창단장을 오래 역임한 채정희단장을 설득하여 전국적 불교합창단 조직을 결성하였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조직이 어수선 하기도 했고, 특정 종단에 소속되는 조직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도 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그래서 생각이 난다. 초대회장의 열의와 전국적 조직을 통한 불교의 발전을 꿈꾸는 많은 분들의 노고로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는 더욱 공고한 모습으로 조직이 안착되었다. 벌써 전국적 단위의 합창제를 여러 번 개최하였다. 올해도 11월 25일 전국불교합창제의 개최를 앞두고 어김없이 각 지역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단체는 항상 몇 가지 공통된 방향

불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만나던 항상 불교문화의 융성한 발전과 전법포교의 목적을 놓지않고 안 될 것이다. 전국불교합창단 연합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더없이 소중한 더욱 발전시켜야 할 단체이다. 합창을 통해 하나가 되고, 조직을 통해 더욱 견고히 연합한다면 긴 역사 속에서 한국음악의 전통과 발전을 주도해 온 불교음악의 새 부흥기를 이룩하는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우리들의 불교합창단원들이 연합을 통한 조직발전과 합창을 통한 개개인의 심성을 더욱 온화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고 싶다.

가을이 남모르게 깊어가고 있다. 오늘 하루쯤은 고요히 앉아 우리 합창단이 부른 노래를 듣고 싶다. 이제 나도 일타큰 스님처럼 노래를 들어도 맘이 흥하지 않고 더욱 심성이 깊은 진 나이가 된 것일까?

갑자기 어느 불교합창단의 공연이라도 찾아 나서고 싶다. 노래하는 그들이 보고 싶어진다.



성원 스님 (제주 약천사 주지)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불다**

위드불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불다를 검색하세요.